

## 第5次 世界經濟學者 大會 參席報告

高 承 濟\*

### 次 例

1. 經濟學者的 辯明
2. 資源問題에 關한 意見對立
3. 日本經濟觀의 實像과 虛像
4. 福祉政策의 志向目標
5. 世界經濟속의 韓國座標

### 머 리 말

지난 8월 29일~9월 3일 간에 東京에서 開催되었던 「經濟學者世界會議」는 「經濟成長과 資源」을 主題로 하는 國際學術會議였던 만큼 主催國인 日本뿐만 아니라 歐美諸國의 關心의 對象이 되었다. 나는 이 會議에 韓國經濟學會長인 崔虎鎮博士를 代理하여 韓國代表로 參席하여 運營理事會에 參席하였기 때문에 이 國際學術會議가 거두었던 學問의 成果에 對하여 소상한 意見을 말할 수 있는 處地에 있는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會議에서 舉論된 5大項目의 問題點에 關하여 내 個人的 意見을 알세우는 바 없이 客觀的인 論評을 베풀므로써 經濟成長·資源問題·世界經濟의 新秩序 等에 關한 經濟學者들의 意見을 整理하여 보고자 하는 바이다.

### 1. 經濟學者的 辯明

第5回 經濟學者世界會議를 主催한 國際經濟學會(IEA)의 會長이고 파리大學의 經濟學教授인 마란보우(Edmond Malinvaud)教授는 8월 30일의 本會議에서 「經濟成長의 費用」이라는 主題論文을 發表하였다. 이 論文發表에서 마란보우教授는 現代經濟學의 危機論에 對하여 所信에 넘치는 反論을 提起하여 注目を 끈 바가 있었다. 이제 마란보우教授의 論旨을 要約하여 보기로 하겠다.

첫째로 2次大戰後의 經濟學은 經濟理論과 計量技術을 結合시키는 方法論을 定立할 수가 있었으며 經濟現象을 支配하는 法則에 關한 研究을 深化시킬 수가 있었다.

둘째로 이러한 成果를 올렸음에도 不拘하고 經濟學이 無力하다는 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은 根據없는 批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의 意見에 따르면 經濟學이 危機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現代의 經濟社會가 危機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公平한 判斷이라고 한다.

세째로 近代經濟學의 分野가 여러가지 學派로 分裂되고 있는 現象을 經濟學의 危機로 보는 것도 妥當한 見解로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經濟學의 研究對象인 經濟社會가 缺陷을 지니고 있는만큼 研究方法이 서로 달라진다는 것은 오히려 當然한 現象인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다.

現代經濟學이 맞이 하고 있는 實態를 마란보우教授처럼 몇몇한 姿勢로 危機論을 否定하는 것도 하나의 立場이라면 立場인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高壓的인 立場에서 經濟學을 辯明하는 것만을 能事로 삼는 것도 辯明을 爲한 辯明이라는 느낌을 품지 않을 수가 없다.

다음 美國·콜로라도大學의 보울딩(Kenneth E. Boulding)教授는 經濟成長의 促進要因을 다루는 第2分科에서 「經濟發展은 社會進化이다」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1930年代에 比較하여 1970年代의 資本主義經濟는 훨씬 有利한 條件에 加로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意見을 提起하였다. 다만 石

\* 本學會理事

油危機의 주름살을 先進諸國은 가볍게 받았음에 대하여 後進諸國들이 深刻하게 받았다는 事實을 指摘하면서 에너지의 費用은 더욱 增大될 것으로 展望되는 바이나, 世界가 한덩어리로 智慧롭게 對應한다면 克服이 不可能한 것은 아니라고 斷定하였다.

## 2. 資源問題에 關한 意見對立

經濟成長의 未來와 資源問題를 다루는 第3分科에서 스테인포드大學의 로젠버그(Nathan Rosenberg)教授가 「技術·資源·經濟成長」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였으며 瑞典 國際經濟研究所의 라뎡스키(Maria Radetzki)教授가 「工業用礦物資源의 長期供給이 可能한 것인가」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그리고 瑞西 技術研究所의 프리쉬(Bruno Fritsch)教授는 「代替에너지開發의 所要資本」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이 세가지 論文이 發表됨으로서 資源問題에 對한 經濟學者들의 長期展望은 樂觀的인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印象을 內外에 풍기게 되었다.

로젠버그教授의 見解는 現下의 資源問題가 經濟成長의 制約要因으로 作用하리라는 悲觀的見解를 完全히 뒤엎는 것이었다. 近代經濟史를 回顧하여 보더라도 資源의 制約을 克服하는 產業技術의 發展이 가까운 未來에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 로젠버그教授가 품고 있는 樂觀論의 理論의 根據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下의 資源問題는 稀少資源의 供給不足을 克服하는 產業技術의 發達이 미쳐 이루어지지 못한 事實에서 發生한 短期的인 問題에 지나지 않는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한편 瑞典의 라뎡스키教授는 鐵鋼·알루미늄·銅等の 金屬資源은 今世紀안에 需要를 充足하기에 充分한 埋藏量이 있는만큼 資源不足이 物價引上의 要因으로 作用하리라는 展望은 塞을수가 없다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프리쉬教授는 將次 100億의 世界人口가 美國만큼한 生活水準을 누린다 하더라도 에너지消費量은 太陽熱의 1%이하의 것이므로 두려울 것이 없다는 意見を 提起하였다.

그러나 歐美先進國學者들이 提起한 樂觀的 見解와는 달리 第6分科에서 日本經濟의 成長과 資源問題를 다루는 論文을 發表한 日本人學者들의 見解는 오히려 悲觀的인 色彩가 濃厚한 것이었다. 日本에너지經濟研究所의 理事長인 向坂正男씨는 日本이 定立한 에너지需給의 展望을 分析한 結論에 立脚하여 悲觀的인 見解를 表明한 바가 있었다.

資源問題에 대하여 애써서 悲觀한 것도 없고 구태여 樂觀한 것도 없을 것이다. 悲觀論이나 樂觀論을 定立하는 일 自體가 問題인 것이 아니라 資源供給의 制約에 對應하는 國民經濟의 運營方式이 무엇인가 또는 에너지資源의 供給不足을 克服하는 代替에너지의 開發이 可能한 것인가, 이런 問題意識에 立脚한 活潑한 討論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學術會議가 저질은 하나의 失敗로 斷定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가령 資源의 供制給約에 맞맞는 國民經濟의 運營方式을 低成長體制로 假定한다면 低成長體制 밑에서 失業率과 인플레이션率을 極少化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느냐 없느냐를 진지하게 討論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을 것이 아닌가. 또한 人類의 꿈의 에너지로 알려지고 있는 核融合같은 問題에 대한 國際的 協力方式에 관한 積極的인 意見提示같은 것이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었는가.

다음에 資源問題를 보는 視線에 관하여 한가지 事實만을 指摘하여 보기로 하겠다. 資源을 에너지와 金屬資源에 局限한 것이 아니라 食糧을 비롯한 植物資源의 開發을 爲하여 一次産業의 近代化를 促進하는 것이 資源政策의 基調가 되는 것이라는 意見이 자주 提起된 바가 있었다. 이 國際會議에 參與하는 동안에 農業에 대한 政策姿勢를 食糧을 生産하는 傳統産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資源의 制約을 克服하는 資源産業으로 보아야 한다는 所惑을 내 마음속에 다짐하는 바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 3. 日本經濟觀의 實像과 虛像

이번 經濟學者世界會議가 日本에서 開催되었고 「日本의 經濟成長과 資源問題」라는 特別分科마저 設置되었던 만큼 本會議나 分科會議에서 發表된 主題論文에 대한 討論이 日本經濟의 事例에 言及되는 바가 많았다. 마치 日本經濟와 世界經濟의 調和的 關係와 對立的 關係를 찾아내는 일을 主任務로 하는 學術會議였다는 印象마저 품게 되었다.

어찌하여 世界各國의 經濟學者들이 日本經濟의 成長要因에 대하여 크나큰 學問的關心을 가지게 되었는가. 무엇보다도 日本이 누리어 온 持續的인 高度成長이 世界經濟의 運營을 攪亂하는 對立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는 現實判斷에서 빚어진 結果인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第6分科에서 日本의 「유기자와」教授가 日本과 美國의 勞働生産力을 1953~1972年間の 數値를 基準삼아 比較檢討하는 論文을 發表하였으며 伊太利의 자네레티(R. Zaneletti)教授는 日本과 伊太利의 經濟成長要因을 比較하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이 論文發表者에 대한 佛蘭西教授의 質問은 매우 印象的인 것이었다. 日本과 佛蘭西의 事例를 比較하여 본다면 金融制度나 政府의 產業政策도 同一할 뿐만 아니라 勞働組合의 活動樣式도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日本의 經濟成長率은 높고 佛蘭西의 經濟成長率이 낮은 理由가 무엇인지 도무지 理解하기가 어렵다는 質問이었다.

經濟成長의 要因을 國際的으로 比較하는 研究作業을 하여 보지 못한 탓인지 日本學者들의 發表論文들은 西歐學者들이 품고 있는 수수께끼를 풀어줄만큼 說得力이 있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웠다. 나로서는 產業에 있어서의 人間關係가 日本의 高度成長과 歐美의 低成長을 빛내는 分岐點이 아닐 수 없다는 感을 품어 보았다.

美國의 브론펜브레너(Martin Bronfenbrenner)教授가 「日本經濟成長의 限界效率理論」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日本의 投資行爲가 下請制度라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으며 日本經濟政策의 基本手法이 인플레이션政策임에도 不拘하고 貯蓄率이 높은 水準을 維持하고 있다는 것이 日本經濟成長의 秘訣이라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下請制度라는 日本型投資行爲가 日本經濟成長의 秘訣이라는 意見에 대한 日本人學者들을 答辯은 오히려 支離滅裂한 것에 가까웠다.

나는 브론펜브레너教授의 發表를 조용히 들으면서 어찌하여 그는 下請制度의 政策的含蓄을 大企業體制와 中小企業體制的 共存關係를 풀이하지 못하느냐를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한편 美國을 비롯한 經濟大國들의 學者들이 품고 있는 日本經濟觀은 매우 現實的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世界經濟의 運營秩序를 亂攪하면서 혼자서 高度成長을 누리고 있는 日本은 이제야말로 에고이스틱한 經濟運營方式을 是正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論調를 세우고 있었다.

日本의 對美輸出은 昨年에 54億弗의 黑字를 나타냈으며 今年에는 6~70億弗의 黑字를 나타낼 것이 豫想되고 있다. 今年 1~7月間の 實績만을 보더라도 貿易收支가 86億弗의 黑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經常收支가 46億弗의 黑字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黑字幅을 削減하는 果敢한 收入增大政策을 實施하지 않고 日本景氣의 振作이 世界經濟의 運營에 寄與하는 길이라고 固執하는 日本의 態度에 대한 海外의 批判論을 그냥 그대로 反映한 것이 이번의 經濟學者世界會議에 흐르고 있는 雰圍氣였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

奇異한 現象은 日本學者側으로부터 大幅黑字國 日本에 대한 海外의 批判論에 대한 學問的 對應姿勢가 表示되는 바가 없었다는 事實이다.

더구나 하바드大學의 조르겐슨教授와 프린스턴大學의 니시미즈助教授가 1952년에 日本의 技術力이 美國의 50%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70년에 이르러 90%로 增大하였으며 1973년에는 0.4%로 美國의 技術力을 凌駕하였다는 論文을 發表한 會議場의 雰圍氣야말로 매우 衝擊的인 것이었다. 이 論文이 發表되었던 第6分科會議에는 數 많은 美國人學者들이 參席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論文의 發表를 듣고 顔色이 붉어가는 表情을 지었다. 예일大學의 패트릭教授는 그럴리가 없다는 듯이 研究方法論에 대한 批判意見을 提起하였다. 政府部門을 除外하고 民間部門의 技術力만을 比較의 對象으로 局限하는 方法도 옳지 못한 뿐만 아니라 業種別 技術力の 比較도 배풀어야 할 것이 아닌가고 興奮한 語調로 質疑하는 場面이 벌어졌다.

이 論文의 推計結果가 옳은 것이라면 日本이 產業技術의 優位國이 된만큼 아무리 黑字基調를 削減하는 輸入開放政策을 實施한다 하더라도 美國은 入超國이 되고 日本이 出超國이 되는 것은 宿命的인 事實이 아니겠는가. 이런 所感을 품게된 美國人學者들의 表情은 어찌지 우울한 것에 가까웠다.

美國을 비롯한 先進國들이 日本經濟의 未來와 日本의 未來에 대하여 恐怖感을 품고 있는 事態가 어떤 方法으로 解消될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世界經濟와 世界政治의 새로운 秩序를 確立할 수 있느냐

느냐를 판가름하는 礎石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으면서 午後 6시에 幕을 내린 會議場을 걸어 나왔다.

#### 4. 福祉政策의 志向目標

環境問題와 福祉政策에 관한 學問的關心이 여러가지 形態로 힘차게 提起되었던 것도 이번 經濟學者世界會議에 나타났던 風潮였다.

日本の 宮本健一教授는 「日本の 環境保護政策의 展開過程과 評價」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佛蘭西의 푸루도메(Rémy Prud'homme)教授도 「日本環境政策의 評價」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또한 金森久雄氏도 「日本の 經濟成長과 福祉」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全體會議나 다른 分科會議의 論文發表에 있어서도 環境問題와 福祉政策에 關한 意見의 提示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佛蘭西·파리大學의 푸루도메教授의 發表內容을 먼저 간추려 보기로 하겠다. 佛蘭西學者가 日本의 首都에서 日本의 公害問題를 解明하는 處地에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그의 姿勢는 裁判場의 判事처럼 멧 멧한 것이었다. 日本이 高度成長에 成功한 것은 明白한 事實이다. 그러나 公害問題에 아무런 關心과 對策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高度成長에 成功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告發이었다. 佛蘭西學者가 日本經濟의 恥部를 告發하는 論文發表를 듣고 있었던 日本人學者들의 表情은 우울한 것으로 보였다.

日本の 宮本健一教授의 論文發表는 公害問題에 아무런 關心과 對策조차 베풀지마 高度成長에만 注力하고 있는 것이 日本의 經濟成長方式이라고 斷定하는 佛蘭西教授의 告發에 對한 說得力이 없는 辯明으로 始終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指摘하고자 하는 事實은 環境問題나 福祉政策에 대한 論議가 새로운 次元으로 變化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첫째로 環境問題를 福祉政策의 次元에서 解明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意見이 提起되었다는 事實을 指摘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公害없는 環境이야말로 가장 고마운 福祉로 볼 수가 있다는 意見이 힘차게 提起되었다.

둘째로 環境保全을 爲한 施設投資를 不況克服의 刺激素로 活用할 수가 있다는 意見이 提起되었다는 事實이다. 環境保全을 經濟成長의 對立條件으로 볼 것이 아니라 調和的인 條件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意見의 提示로 풀이할 수가 있다.

세째로 福祉政策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爲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福祉를 計量할 수가 있는 概念으로 把握하여야 하는데 이와같은 計量할 수가 있는 祉福概念의 定立이야말로 現代經濟學이 다하여야 할 貴重한 使命이라는 事實이다. 그러면 福祉를 計量할 수가 있는 것으로 그 概念을 定立하고 福祉政策을 推進해야 하는 것이라면 具體的으로 어떠한 政策的인 含蓄을 지니는 것인가. 내가 느꼈던 바로서는 社會間接資本을 產業優先에서 生活優先으로 轉換하는 政策이 바로 福祉政策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環境對策이나 福祉政策에 支出되는 費用을 消費者가 負擔하여야 옳을 것인가 政府가 負擔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에 관하여 活潑한 意見의 交換이 있었다. 政府가 負擔하여야 옳다는 意見이 많은 支持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 5. 世界經濟속의 韓國座標

8月 29日和 30日에 開催되었던 本會議에서 6名의 經濟學者가 基調論文을 發表하였다. 印度의 라지(K.N. Raj)教授가 「經濟發展의 沮害要因(Barriers to Development)」이라는 論文을 發表하였다. 論文의 內容보다도 後進國經濟學者의 意識構造를 表明한 發表였기 때문에 注目의 對象이 先進國은 先進國이기 때문에 經濟的繁榮을 거듭하여 가고 있으며, 後進國은 後進國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貧困속에 잠겨 있다는 宿命論이야말로 印度教授가 지니고 있었던 意識構造였던 것으로 풀이하여 볼 수가 있다.

印度教授의 發表에 對한 討論者로 登場하였던 美國의 바라샤(Bela Balassa)教授는 韓國이 過去 15年間에 걸쳐서 쌓아 올린 經濟成長의 成果를 客觀적으로(評價한 然後에 韓國의 實例야 말로 後進國이 後進國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貧困속에 잠겨어 있게 된다는 宿命論을 깨트리기에 充分한 貴重한 事例가 되는 것으로 믿어 마치 않는다는 結論을 힘차게 내리었다.

多辯을 能事로 하는 印度教授는 韓國이 經濟成長에 成功한 要因이 日帝時代に 日本人들이 水利事業을 展開하였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가 없는 答辯을 하였다. 이런 討論光景을 듣고 있는 동안에 내 가슴속에는 다음과 같은 所感이 솟아 올랐다. 韓國의 學者뿐만 아니라 企業家·外交官·官吏들이 果然 韓國經濟의 成長過程과 成長要因을 體系있게 說明할 수가 있는 能力을 갖추는 일이 火急한 課題임을 切感하게 되었다. 自己確認(Identity)이라는 말이 있다. 韓國의 企業家이고 韓國의 學者이기 때문에 韓國經濟를 說明하는 能力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自認한다는 것은 容恕하기가 어려운 怠慢일 수 밖에 없다는 所感을 느끼게 되었다.

印度學者가 품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韓國經濟觀을 들으면서 나는 外交官의 使命이야 말로 韓國經濟의 成長過程과 成長要因을 駐在國의 國民들에게 體系있게 說明하고 알리는 것이라는 所感도 품어 보았다.

8月 31日~9月 1日에는 6個分科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나는 日本의 經濟成長과 資源問題를 主題로 하는 第6分科에 參席하였다. 하바드大學의 조르겐손(Dale Jorgenson)教授와 프린스턴大學의 니시미즈助教授가 共同으로 發表한 「美日兩國經濟成長力の 比較」를 興味있게 들었다. 이 發表論文이 담고 있는 內容은 産業技術의 發展水準을 比較하여 1973年을 고비로 日本의 産業技術이 美國을 凌駕하였다는 事實이다. 그런데 發表者들은 美日兩國뿐만 아니라 韓國에서 産業技術이 發展하여 가고 있는 實態도 比較의 對象으로 삼아야 한다는 意見을 表示하였다. 이런 事實마저 아울러 생각한다면 韓國이 쌓아 올린 經濟成長의 實情은 매스컴의 論評對象에서 學者들의 學術研究의 對象이 되어 가고 있다는 儼然한 事實을 알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